

# 광주여대, 자율전공학부 통합 선발

### 30일~내년 1월3일 정시모집...신입생 첫학기 등록금 감면

광주여자대학교가 오는 30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 2022학년도 정시모집을 실시한다.

정시모집은 자율전공학부 통합선발되며, 통합선발로 입학한 학생은 자율전공학부 내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학부(과)로 100% 배정된다.

자율전공학부는 1, 2로 구분되며, '자율전공학부 1'에는 항공서비스학부, 항공보안경호학과, 경찰행정학과, 사회복지학과, 상담심리학과, 한국어교육학과, 글로벌영어교육학과가 '자율전공학부 2'에는 언어치료학과, 보건행정학과, 식품영양학과, 반려동물보건학과, 미용과학부가 포함된다.

그 외 사범계열, 보건계열, AI융합학과, 실내건축디자인학과는 기존과 동일하게 학과별 모집단위로 정시모집을 실시한다.

정시모집은 가군, 나군을 중복해 2회를 지원할 수 있으며, 수능 미응시자도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수시모집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대학(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을 할 수 없다.

모든 학부(과)에서 수능 71.4%, 학생부 28.6%가 반영된다. 수능성적은 국어, 수학, 탐구(택1) 3과목의 평균 등급과 영어 등급을 반영하며, 학생부는 성적과 출결을 반영한다.

정시모집에서 면접 등 대학별 고사는 실시하지 않는다.

수험생들은 입학 안내 홈페이지(ipsi.kwu.ac.kr)에서 2021학년도 정시 지원현황, 최종 수능 및 학생부 등급을 열람할 수 있으며, 본인의 학생부 및 수능성적을 산출해 볼 수 있다. 또한 유튜브에서 광주여자대학교를 검색하면 학부(과) 소개, 실습실 등을 간략한 영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광주여자대학교는 코로나19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소득구간 8구간 이내인 경우 첫 학기 등록금 전액을 감면하며, 9분위 이상 및 국가장학금 미신청자는 합격자

전원에게 등록금 범위 내에서 장학금 150만원을 지급한다. 장학금은 등록금 납부 시 감면 처리되며, 타 장학금에 해당될 경우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

또한 학생들의 거주지 안정 및 편의 제공을 위해 첫 학기 신청자에 한해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는 기숙사 입사를 보장하고 있다. 광주권 거주자는 제외된다.

광주여자대학교는 항공·사범·미용·보건외로 분야를 주축으로 하는 특성화 대학으로, 입학부터 졸업까지 원스톱 평생지도교수제를 운영하여 모든 교직원의 헌신적인 학생 사랑으로 '현장에서 바로 적용하는, 기업이 원하는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다.

2021년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 일반재정지원대학 선정 및 취업률 공시연도 기준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 4년제 여자대학교 중 9년 연속 1위를 기록하며 여자대학교로서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명문 대학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 동강대, 신성장 동력 실무형 인재육성 추진

###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행사

동강대학교가 일과 학습을 병행할 신성장 동력 분야 실무형 핵심인재 양성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동강대는 최근 교내에서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예비대학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내년도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예비입학생의 전공과 직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동강대는 올해 전국 권역별 5개 전문대학에 시범으로 주어지는 교육부의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에 호남·제주지역 대표로 선정됐다.

사업 선정으로 동강대는 2022학년도 '미래 지능형 모빌리티과'와 '미래 친환경 에너지과' 등 2개의 계약학과를 신설해 각각 35명, 총 70명의 신입생을 선발한다. 계약학과 학생들은 1학년 등록금

전액 지원된다.

1학년 때 학생 신분으로 학비 면제뿐 아니라 취업·창업장려금 400만 원을 받으며 전공·실무 교육을 받는다. 2학년 때는 취업약정 협약을 맺은 중견기업 및 유망 중소기업에 취업하고, 산업체 재직자 신분으로 일과 학습을 병행하며 3학기 만에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하게 된다.

동강대는 광주지역 우수 중견 기업 등과 간담회 및 협약을 체결해 성공적인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의 운영에 힘쓰고 있다.

산학협력단 김명수 단장은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는 학생들이 체계적인 맞춤형 교육을 통해 미래 신 성장 산업 분야의 핵심인재로 커나갈 수 있도록 하며 "프로그램 참여 학생들이 예비대학을 통해 교육과정을 미리 이해하고 진로 선택에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 광주대 김희주·김경민 학생, 한국세무사회 표창

### 자격취득 우수자 선발 수여

광주대학교(총장 김혁중) 회계세무학과가 해마다 자격취득시험 우수자에게 수여되는 표창장을 휩쓸며 지역 최고의 회계·세무 인재 양성 요람으로 인정받고 있다.

13일 광주대에 따르면 회계세무학과 김희주(4년)·김경민(3년) 학생이 최근 한국세무사회가 시행하는 전산세무회계 학업성적 우수 표창장을 받았다. 이번 표창장은 한국세무사회가 전국 회계

및 세무 분야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격취득 우수자를 선발해 수여하는 상이다. 김경민 학생은 국가공인 재정관리사와 전산세무 1급 및 2급, 전산회계 1급 및 2급 등을 취득했다. 또 김희주 학생은 국가공인 재정관리사, 전산세무 2급, 전산회계 1급 및 2급 등을 취득하며 표창장을 받았다.

광주대는 지난 2019년과 2020년에도 각각 2명의 학생이 한국세무사회가 시행하는 국가공인 자격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해 표창장을 수상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 동신대 차두옥 교수, 연극 '아비' 무료 공연

### 14~15일 빛고을 아트스페이스

동신대학교 뮤지컬·실용음악학과 차두옥 교수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광주·전남 지역민들을 위로하고 희망찬 새해를 기원하기 위해 송년 무료 공연을 준비해 눈길을 끌고 있다.

동신대에 따르면 차 교수는 극단 '춘풍'과 준비한 연극 '아비'를 오는 14일과 15일 오후 7시 광주 남구 구동 광주문화재단 '빛고을 아트스페이스' 5층 공연장에서 무료로 선보인다.

연극 '아비'는 아버지가 한평생 모은 100억 원

대의 유산을 고향의 대학에 기부하는 문제를 두고 자식들과 다투는 모습을 코믹하고 감동적으로 그린 세태풍자 휴먼 코미디이다. 아버지의 재산을 유산으로 받기 위해 아버지를 회유하고 협박하고, 심지어 어머니와의 이혼까지 독촉하며 재만까지 진행되는 3남매, 그런 자녀들의 모습에 충격을 받아 세상을 떠나는 아버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비로소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는 자녀들을 통해 현대사회에서의 '효'와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하게 하는 연극이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 호남대, 상무소각장 아이디어 공모 최우수상

호남대학교 미디어영상공연학과(학과장 최영화) '불타오르네' 팀(2학년 박정은, 심무선, 이시연)이 최근 광주에서 주최한 '상무소각장 문화기획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불타오르네' 팀은 상무소각장 재탄생 및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공모전에서 환경보호와 관련된 스토리와 네 가지 캐릭터를 등장시키는 유니버

스식 구조의 아이디어로 관람객들의 참여를 극대화

해 광주시장상(부상 300만원) 수상자로 선정됐다. 상무소각장은 지난 1996년 8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 이후 2001년 12월부터 지역 쓰레기들을 소각해오다 지난 2016년 12월에 폐쇄됐다.

현재 광주시는 상무소각장 공장동 시설을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전, 지역 내외의 창의인력과 지역주민이 시설을 자유롭게 사용해보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해남 북일초등학교에서 북일면 작은학교살리기추진위원회 주최로 최근 '작은학교 살리기' 설명회가 열렸다. <해남군 제공>

# 해남군 북일면 '작은학교 살리기' 진심 통했다

### 귀촌캠페인 전국서 문의...전입희망 63가구 중 20가구 최종 선정

"전학으면 집 주고 일자리도 제공합니다." 해남군 북일면 주민들이 학교살리기를 위해 전국을 대상으로 귀촌 캠페인을 펼친 결과 200여 가구가 문의하는 등 호응을 얻었다.

북일면 작은학교살리기추진위원회가 전입을 희망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최근 접수를 마감한 결과 총 63가구가 신청서를 접수했다. 예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성과다.

추진위는 접수 가구를 대상으로 이틀간 학생모심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전입 예정가구 20가구를 선정해 발표했다. 전입가구를 위한 빈집도 당초보다 6채 늘어난 19채 확보했다.

작은학교 살리기가 전국에서 호응을 얻자 빈집이 추가 확보됐으나 내년 봄 집행 예정인 빈집 리

모델링 예산이 2억원 정도로, 우선 공급되는 빈집은 15채다.

앞서 지난해 11월 해남군 북일면 주민들은 지역 학교로 전학으면 해외연수는 물론, 집도 주고 일자리도 마련해 준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고 인구 유입 활동에 나섰다.

초등학교 전교생이 22명이며 중학교는 19명에 불과한 지역이 자칫 소멸될 것으로 염려해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북일면과 북일초·두문중 등으로 민관학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지난달 3일 북일초등학교에서 열린 '학생모심 캠페인'은 면민 등 100여명이 참석해 주민들의 의지를 전하는 호소문을 발표하고, 경운기 퍼레이드

와 만장·피켓 퍼포먼스를 펼쳤다.

또 지난달 9일에는 지역민과 서울 향우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장 광장에서 캠페인을 실시했다.

전입 학부모에게는 빈집을 리모델링해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정착이 가능하도록 일자리도 마련할 계획이다.

학생들에게는 해외연수와 장학금, 학생별 공부방 꾸미기, 온종일 돌봄, 천혜의 자연과 함께하는 생태교육 등 특전을 제공할 방침이다.

신평호 북일면 주민자치회장은 "내년 개교 100주년을 맞는 북일초등학교의 학생수가 갈수록 줄어들어 폐교 위기까지 몰리게 됐다"며 "학교가 살아야 지역이 산다는 목표 아래 학생 유치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DK.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